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아들에게 전하는 말

(『息子に贈ることば』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日 科

金 賢 娥

2018年 7月

아들에게 전하는 말

(『息子に贈ることば』 翻譯論文)

指導教授 李 禮 安

金 賢 娥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7月

金賢娥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8年 7月

역자서문

행복이란 무엇인가 늘 고민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행복한 것은 아닌가. 매일 아침 눈 뜨고, 매일 밤 눈 감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걱정 하나 없고, 힘든 일 한번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기쁘고 행복이 아니겠는가. 행복은 그렇게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역자의 이런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저자는 첫머리부터 ‘불행은 금세 알아차리지만, 행복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와 아들의 일상 이야기이다. 아빠와 아들 단둘이 고향인 일본을 떠나 이국땅 과리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과 둘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을 짧게 엮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공유하다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2월 일본 ‘분케이순주(文藝春秋)’에서 발행한 원서 『아들에게 전하는 말(息子に贈ること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저자가 SNS에 기록해 왔던 이야기를 토대로 읽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본문에서는 ‘좋은 아침(2010년/2011년)’, ‘열심히 살자(2012년)’, ‘편해졌습니다(2013년)’, ‘아자!(2014년)’, ‘어서 와(2015년)’라는 부제로 나누어 연도별로 소개한다. 이 논문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야기만을 번역하여 전한다.

저자 ‘쓰지 히토나리(辻仁成)’는 1989년 『피아니시모』로 제13회 스바루 문학상을 받으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아쿠타가와 상, 프랑스의 페미나 상(외국소설 부문)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많은 작품이 번역 출판되었다. 세계 각국에 많은 팬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이지만 작가뿐 아니라 뮤지션, 배우, 영화감독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작가도, 뮤지션도, 배우도, 영화감독도 아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육아에 허덕이기도 하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아빠가 삶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 아이를 키우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꾸밈없는 말들을 차분히 써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독자의 동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웰빙(well being)’이나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란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여유롭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독서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찾고 마음을 치유하려는 사람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저자와 함께 공감하며 행복을 찾아가게 되기를, 저자의 메시지가 지친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그들 또한 그들의 아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이번 번역에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준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8년 7월

김현아

국문 초록

‘좋은 아침(2010년/2011년)’은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아직은 많이 힘든 파리에서의 생활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나아가려고 하는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이다. 초등학교생인 아들을 등하교시키면서 걱정하는 아빠와는 달리 어린데도 의젓한 아들에게서 새삼 배우게 되는 아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아빠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아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격려한다.

‘열심히 살자(2012년)’에서는 사랑, 미움, 절망, 희망, 배신 등 사람이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이겨냄으로써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그런 과정에서 아빠도 아들도 또 다른 성장통을 겪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자고 다짐한다.

‘편해졌습니다(2013년)’에서는 ‘인연(因緣)’이라는 단어를 통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편하게 흐르는 대로 맡겨두라고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것 또한 ‘인연’이며 그런 과정에서 ‘나’를 알고 신념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은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며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목차

<역자서문>

<국문초록>

<본문>

좋은 아침 (2010년 / 2011년) · · · · ·	03
열심히 살자 (2012년) · · · · ·	15
편해졌습니다 (2013년) · · · · ·	40

<참고문헌>

<일본어초록(日本語抄録)>

불행은 금세 알아차리지만
행복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해

좋은 아침
(2010년 / 2011년)

아들은 유치원 문을 들어서면서 절대 아빠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녀석 나름의 결의일까. 작은 백인 사회에 놓인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의... 배웅하는 아빠는 돌아 봐주길 바라지만... 프랑스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문틈으로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으악~ 마음 아파. 그래도 힘내렴.

좋은 아침. 오늘 하루가 너에게 좋은 날이 되기를. 힘든 일도 있겠지만 즐거운 일도 있지요. 매일매일은 그런 반복입니다. 좋잖아요, 좋다 칠까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어디세요? 잘 지내시죠?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사람이 싫은가요? 아, 사랑하고 있나요? 고민하고 있나요? 정말이지 지루하다고요? 행복하세요? 매일 똑같은 나날인가요? 거긴 맑은가요? 요새 웃고 지내나요? 인간관계, 참 힘들죠? 점심 메뉴는 뭐로 하실 건가요? 자 이제, 희망 회복 작전, 시작!

일어났나요? 어떤 아침인가요? 요즘 제 입버릇은 ‘좋다 칠까요?’입니다. 전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항상 ‘뭐, 뻘어’였습니다. 뭘 대로 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걸 ‘좋다 칠까요?’로 바꿨더니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즉 마음먹기 나름. 뭐, 좋다 칠까요?

아마도 오늘 내가 꼭 할 일. 밥을 먹고 불일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소설을 쓰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노래하고 복근운동을 하고 아이를 배웅하고 마중하고 자고 일어나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하늘을 보고 미소 짓고 커피를 끓이고 그것을 마시고 누군가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웃는다, 일까나.

그러니까 옛날, 내가 아이였을 때, 거의 매일 ‘뭔가 좋은 일 없을까’ 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좋은 일은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아티스트가 된 거랍니다.

좋은 아침! 봐, 신기하지 않아? 어제도 좋은 아침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아침이 왔어.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아침이 찾아와. 누구나 힘든 일은 많단다. 하지만 그걸 다음날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밤이 있는 거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저기 있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생일 축하해. 많이 먹으렴. 많이 웃고. 즐겁게 뛰놀고. 많이 배우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울고 신나게 노래하고 당당히 맞서고 많이 즐거워하렴. 그리고 잘 살아다오. 1년에 한 번, 오늘은 너를 위해. 고마워 한 만큼 축하받을 수 있단다.

아들이 “아빠, 지구는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하고 물었다. 난처했다.

말이란 게 어렵다. 7살 난 아들이 어떤 때에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지 알려달라고 해 어제는 종일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다. 말이 갖는 섬세한 이미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아들이 ‘우연’을 마스터 했을 때, 뭐랄까, 거기에 일본어가 바짝 다가와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몸뚱이 속에 도대체 몇 개의 마음이 있는 걸까. 어떤 게 진짜 마음일까.

요즘 줄곧 생각한다. 생각해도 답이 없을 법한 일들뿐....

스무 살의 열정은 ‘푹푹하다’고 하고 서른의 열정은 ‘끓다’고 하며 마흔의 열정은 ‘끈덕지다’고 합니다. 반세기를 산 지금이야말로 열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냉정은 인생의 양념!

여긴 어마어마한 천둥이 지나가는 중. 아들이 무섭다기에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줬습니다. “아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고 묻기에 “사랑으로”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대답이 없기에 봤더니, 어느샌가.... 잠들었다!

어제 아들을 학교까지 배웅할 때 생긴 일. 책가방을 등에 지고 터덜터덜, 교문

안으로 빨리 들어가듯 걸어가는 아들의 등을 향해 “지지마!”하고 부모의 마음을 외쳤더니 아들이 뒤를 돌아보고는 “지면 뭐 어때” 한마디 되받아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 졌다” 가 새어 나온 아빠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손금을 보며 이것은 하느님이 찍어준 도장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둘이서 서로의 손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손, 쭈글쭈글. 내 손은 반짝반짝. 나뭇잎 같아.

달리면서 달리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매일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이 있는 거라고 믿고 싶다. 내일이라는 날을 오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일은 오늘만 꿀 수 있는 꿈. 오늘이 있기에 있는. 희망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굳게 믿는다.

고등학생이 되면 하교 그 자체의 의미도 달라져, 이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다. 새로운 출발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 시절의 하교가 아련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생각났다. 어린 시절 항상 두근두근했었어. 두근거리지 않는 날은 없었지. 세상이라는 말을 동경하며 끝이 없는 것을 늘 상상했었어. 그래, 그 시절 특기는 ‘공상’이었어. 공상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재미있었지.

어린 시절 ‘공상의 힘’이라는 공책을 만들어 알 수 없는 것들을 끄적거리곤 했었다. 시, 만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까지. 하지만 뭔가 그 알 수 없는 것들에 두근거렸다. 그런데 점점 알 수 있는 것이 되어 왔는지도. 그게 어른이라는 거라면, 시시하구면.

와우, 사람은 몇 살이 되도 많은 걸 기다리니까 신기하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있다. 뭘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기다린다. 계속 기다린다.

‘한 걸음’이라는 말이 좋다. 또 한 걸음. 좋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도움닫기를 해서 큰 한 걸음으로. 아니, 작더라도 확실한 한 걸음도 있다. 내딛는 한 걸음을 소중히, 오늘도 열심히 살자!

가을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

하루라고는 해도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이지 언젠든 오늘이라는 날은 굉장하다. 그 굉장한 오늘 안에서 한 줄기 빛을 쬐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을 소중히 하며 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또 하루가 지나간다. 이불 속을 파고들 때마다 ‘또다’하고 생각한다. 어제도 이 순간 같은 생각을 했었다, 하고. 하루가 여러 날이 되어 하루하루가 된다. 태어나고 몇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좋은 아침! 봐, 또 아침은 왔어. 그리고 ‘어제’, ‘내일’이라고 불리던 ‘오늘’이 시작된다. 이 따끈따끈한 오늘은 그대를 위해!

조금 둔한 편이라 몰랐는데, 혹시 나 지금, 슬럼프인가?

어린 시절엔 ‘다음 전봇대까지, 또 한 전봇대만 더’ 하며 멀리 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멀리.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라는 말을 종종 한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멋있지 않아? 인생의 묘미? 그걸 생각하면 조금 지치는 건 당연하다고 나 자신을 타이를 수 있어. 지칠 때라는 건, 어쩌면 인생에 있어 성장기? 그것도 가장 스틸 넘치는!

긍정적이라든가 적극적이라는 말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우울할 때의 내가

사실은 훨씬 더 적극적!

나밖에 몰라서 평소에는 내 주변 세상밖에 보이지 않지만,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나와는 다른 인생이 있고 나와는 다른 운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슬픔도 기쁨도 사람 수 만큼 존재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독서는 고도 만 미터의 상공에서 모르는 나라의, 모르는 거리, 모르는 사람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것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거기에도 나와 닮은 누군가가 살고 있고 역시나 소설을 읽고 있다.

명 때려 본다, 아주 잠시, 나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 좋아하는 말이다. 이 단어에 가끔은 힘을 얻고, 가끔은 용서받기도 하고, 살짝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

‘들이마시고 내쫓고’는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뒤숭숭할 땐 어느샌가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잡는 의미에서 심호흡!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잖아. 의미를 찾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웃는 거, 중요해. 이런 날은 웃음이 마음속에 스며들 것 같아. 마음껏 웃어 보고 싶다. 웃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웃게 돼, 아하하하!

어젯밤에 이어 ‘홀로 작전 회의’. 이렇게 저렇게 예전부터 작전 세우는 것이 좋아서, 물론 인생이 생각대로 되진 않지만, 거기까지 가보자는 목표는 생기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들아, 설레지 않니?

눈을 감고 몸속을 흐르는 한 줄기 강을 그려본다.

뇌신경외과 선생님에게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즉시 ‘뇌 속’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뭐,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고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은 없잖아.

괴롭다거나 힘들단 말은 하지 않지만, 나한테도 힘든 일, 풀리지 않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아. 그도 그럴 게 사람인걸, 나도 물론 끄끖 대. 하지만 절대 질질 끌지 않고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지. 무엇보다 신경 쓰지 않아. 시간 아깝잖아. 고고(gogo)지.

이렇게 힘든데 왜 뛰는 걸까, 생각하면서 뛰고 있는 나를 달래며 막 뛰고 왔습니다.

특별하고 각별한 하루는 아닐 것 같지만 또 오늘이 지나간다. 어릴 적에는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지평선이 보였다. 분명 나라는 파트너는 저기에 가고 싶겠지. 뛰는 날이 있으면 걷는 날도 있어도 돼.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이 행복을 꿈꾸며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고, 내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믿다가도 문득, 소수의 의견에 불과한가 하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다 다르네요. 성난 파도와 같은 하루, 잔물결 같은 하루, 둘 다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그런 게 365번이나 있어 1년입니다. 휩쓸릴 때도, 맞서 일어설 때도 머~얼리 보고 살아갑시다. 아자!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지금 하늘을 보고 있단다.

말이라는 건 분명 그냥 말이지만 그것이 모여 어우러져 반응하고, 영향을 주고, 반발하고, 즉 그런 과정에서 의미가 생겨난다.

고민한다, 별일 아닌 일어야말로. 하지만 마지막은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관찰 수밖에 없다. 망설여질 때는 딱 그만둬야 한다.

사람은 모두 아티스트.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기까지 필요한 것, 우선은 창작 구상, 그리고 기력, 조금의 야심, 양념인 꿈, 결정적인 지속력, 더 많은 노력, 좀 더 말한다면 집념, 약간의 장난기, 혹은 낙이라던가 인생의 의미라던가, 어쩌면 재능도, 드물게는 오해, 그리고 의외로 운, 마지막은 끈질긴 근성!

뭘 찾고 있었지. 항상 찾는 중에 잊어버린다.

걷는 날이 있다면 뛰어야 하는 날도 있다. 감기 드는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다. 오늘, 오늘, 오늘, 생각해보면 계속 오늘이잖아!

어제로는 돌아갈 수 없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역시 사람에게 영원히 오늘밖에 없다. 영원한 지금. 내 나름대로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자!

맞아 맞아, 매력적이라는 단어 좋아.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날 것 같을 때도 요녀석이 있으면 싸움 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좋다. 하지만 매력적이라는 건 어렵다. 매력적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좀처럼 잘 안 된다. 매력적인 사람을 동경한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매력’을 가지고 싶다.

꿈꿨다는 것도 가끔은 중요해. 나도 매일 한 번은 꿈꿨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자지. 하지만 꿈꿨다 일어서려 할 때, 솔직한 나와 만날 수 있고 주변도 잘 보이고, 나쁘지 않아, 꿈꿨다는 거. 술술 풀릴 때의 고마움도 알 수 있고!

아침은 반드시 온다. 대단해. 워낙 잘 잊어버리는 탓에 만약 내가 아침이라면

가끔 혹 지나쳐 버릴지도. 그럼 토요일이 사라지고 갑자기 일요일! 그건 진짜 너무너무 아깝잖아.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또 아침이 와서 다행이야.

찬찬히 키워왔던 ‘의욕 나무’에 조그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좋아.

쭉쭉 자라라, 하고 소중히 다루면 그 어떤 황야라 해도 ‘의욕’은 자라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로 서툴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데도 힘이 들기 때문에 요즘엔 그냥 용서하고 맙니다. 저는 일본어로 용서한다는 뜻의 두 가지 한자 중 ‘허(許)’ 보다는 ‘사(赦)’를 더 많이 씁니다. 뭔가 봤을 때, 책망하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분에 좌우 당한다. 하지만 그 기분이라는 건 결국 나인 거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 이런 날도 있지 하고 중얼거려 본다. 음, 나쁘지 않네.

생각한다는 말, 자주 한다. 사람 같고 좋은 말이다. 생각하지 않게 되면 끝.

바람을 거스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마주 불어오는 바람 자락 끝에 올라타, 보란 듯이 균형을 잡고 언뜻 휩쓸리는 것처럼 보여도 휩쓸리는 것이 아냐, 흘러보내고 있어. 이런, 잊고 있었다, 그렇게 사는 법도 있었지. 너야말로 진정한 로커(rocker)구나. 파리의 갈매기여, 바다는 그림자 같은 걸까.

‘별거 아니지만, 제 마음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니혼슈(日本酒)를 선물 받았습시다. 상당히 정중하면서 뭔가 굉장히 큰 것을 받은 기분. 멋진 말이군.

이 나이에도 아직 불안해지는 일들뿐이다. 뻔뻔스럽게 살아와 놓고는. 계속 이런 반복이겠지. 인생에 불안은 늘 함께 하는 거라 생각하려고 한다. 극복해가는 것이 삶의 보람이잖아, 라고 굳게 믿으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아무 걱정 없는 흥분의 저편에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조금 편해질 텐데.

그리고 보니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능률하게 사는 사람은 가끔 만난다.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는다.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하자,가 지진 후에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었다.

삶의 의미를 계속 찾는다는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저물려 하고 있어, 보이니? 수도 없이 바라봐왔던 석양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똑같지 않은 오늘만의 태양이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기가 되면 왠지 매년, 내년을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나눠 놓아야지. 하지 못했던 일과 할 수 없었던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

어머니의 요리가 항상 최고였다. 비싸고 고급진 음식들도 많이 먹어 봤지만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그라탕과 달콤한 계란말이, 스투. 그 시절엔 몇 번이고 더 떠다 먹었다. 그렇게 매일 어머니는 나를 애지중지 키워 주셨다. 매일이었다. 그 때는 알지 못했다. 매일은 위대하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왜 솔직하게 말로 나오지 않는 걸까. 그럼 간다, 또 올게, 인사하고 헤어진 지 30분 정도 지나고 아차, 하고 후회했다, 정말이지. 저녁 8시 비행기로 하카타에 되돌아갔다. 뭔가 입안에 어머니의 특제소스 맛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 날의 함박스테이크, 또 먹고 싶구먼.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 웃기도 울기도 고민하기도 극복하기도 주저앉기도 합니다. 열심히 싸웠다면 놀거나 한숨 돌리거나 멍하니 있는 것도 필요하지요. 폭 자고 나면 또 힘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울할 때면 그냥 자 버립니다. 일상의 싸움엔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서로 섞여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음악과 광고음, 자동차의 잡음, 웃음소리, 무언가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깜빡이는 신호 사이 간간이 들려왔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나 또한.

이해받고 싶다, 거나 알아줬으면, 하는 말은 더는 하지 않게 됐다. 사랑받고 싶어, 사랑은 양보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쿨해도 되나 하고 가끔 스스로 나무라는 정도.

오모테산도에서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했다. 긴 머리. 선글라스를 끼고 룡코트를 입고 있다. 뭐가 바뀌고 뭐가 예전 그대로일까. 얼마나 살 생각일까. 뭐가 하고 싶은 걸까. 우선, 골목길로. 그 시절, 고민할 때면 항상 골목길로 도망갔었지. 골목길이 아늑해. 골목길이 고향.

만나고 보면 ‘의외’인 사람과 ‘생각대로’인 사람으로 나뉩니다. 나는 항상 “뭔가, 이미지랑 다르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보세요, 역시!

올해 나 자신을 격려해준 최고의 일본어는 ‘편해졌습니다’였습니다. 이 말을 종이에 몇 번이나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씌우면서 미래를 보려고 했던 것일지도. 편해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열심히 살자
(2012년)

새해 첫 꿈, 꿔습니다. 긴 복도를 모두가 빛을 향해 가슴을 펴고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울며 쭈그려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 어쨌든 점점 걸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모두 웃는 얼굴로 복도 끝으로. 그리고 개운하게 잠에서 깬습니다. 그 빛나는 출구 저편에 뭐가 있던 걸까요?

기력은 어디에서 뿜어오르는 것일까. 많이 자서인지 오늘은 투명한 기력이 넘친다. 많이 자면 꿈꿈대던 것이 날아가 활기가 넘친다.

소중한 것이라는 건 뭘까. 한정된 이 세상에서 그것은 과연 얼마나 소중한 걸까. 지금이 소중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너무 소중히 한 나머지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놓쳐버리거나 그랬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소중함을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등대가 되겠다.

응, 그치만 말야, 라는 입버릇을, 응, 그래서 말야, 로 바꿔 봤다. 뭔가 좀 긍정적.

일본어의 '타인(他人)'은 '다른 사람(他の人)'이라고 쓴다. 그에 비해 '나(自分)'는 정말 굉장한 단어 같지 않아? '스스로(自ずと) 알다(分かる)'인지 '몸소(自ら) 나누다(分ける)'인지 미묘하다. 아, '몸소(自ら) 알다(分かる)'일지도!

사람은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아무 말 않는 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나저나 인생에 있어 '무엇'이라는 건 중요하단다. 그 무엇을 언제나 찾고 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무엇투성이란다. 하지만 그 '무엇'을 알지 못하기에 재미있지. 힘들지만 재미있어. 자, 무엇을 해주지, 하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마다 두근두근한단다.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사랑에 대해 이렇게나 노래로 글로 영화로 만들어 왔는데, 이것만큼은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네요. 사람은 뭘까?

거나하게 취해서, 아들아, 너에게 있어 좋은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 경우엔 용서하는 것일까나. 서로 용서하는 것도, 일까나.

하지만 말이죠,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의 연속인걸요. ‘화나’하고 말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나도 가끔은 좋다 칠까요.

참지 말고 ‘화를 내다’라는 건 건강에는 좋아. 참는 건 좋지 않지. 적당한 균형이야. 얼른 화내고 질질 끌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 색즉시공(色卽是空). 매일 매일, 공(空)을 잡는 훈련 속에 있는 나….

빛이 좋은 건 내가 어둠이기 때문.

어둠(闇)을 뜻하는 한자 속에서 소리(音)를 뜻하는 한자를 발견했다!

그래! 절망 속에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야!

젊은 날 절망의 가벼움, 희망의 중대함이어.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러. 으쌰! 으쌰!

기억 속에서 모두 죽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기억 속에서 괴로워하는 주인공들을 그리는 것으로, 저는 사람이라는 동물을 다시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지치고 맙니다. 조금 느긋하면 좋을 텐데!

혼자 흥분하고 혼자 풀 죽고 혼자 들뜨고 혼자 떠들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두근두근하고 혼자 의기양양하고 혼자 우쭐대고 혼자 만취하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훌쩍대고 혼자 기세등등하고 혼자 연기하고 혼자 마구 소리쳐대고 혼자 후련해지고 혼자 사랑하고 혼자 단정하고 혼자….

눈을 뜨면 꿈은 흐려져 사라진다. 현실의 일은 길게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데 꿈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 1년 전에 꾸는 꿈도 하루 전에 꾸는 꿈도 기억하지 못한다. 아무래도 기억되지 않는 구조인 듯. 드물게, 기억나는 꿈이나 반복해서 꾸는 꿈도 있지만, 그것들도 사라지고 만다. 텅없는 꿈의 흔적을 따라가듯 살고 있다.

콩나물의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이 좋다. 배고과도 티 내지 않는 사무라이 같아 좋다. 콩나물이라는 단어의 울림도 멋지다. 비비 꼬여있던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자, 다 됐다. 잘 먹겠습니다. 아, 시치미! 그래, 시치미로 인생에 원 투 펀치. 맛있다!

여든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가끔 생각하지만 여든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항상 오늘이 나의 최선. 미래를 바라볼 여유도 없이. 하지만 그래도 괜찮잖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다다르겠지. 헤헤.
←지금 여기

인생의 정류장에서 몇 번이나 갈아타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고민하고, 인생의 거리에서 몇 번이나 헤매고, 인생의 다리를 몇 번이나 건너, 인생의 무지개를 몇 번이나 올려다보고, 인생의 웅덩이에 몇 번이나 발이 빠지고, 인생의 골목길에서 몇 번이나 방황하며, 인생의 교차로에서 몇 번이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인생의 무대에서 몇 번이나 창피를 당하고, 인생의
.....

옛날에는 희미한 불안이었지만 요즘은 선명한 불안이 되었다. 불안에 지고 만다면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매일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이야.

아들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배웅하고 왔다. 여전히 돌아보지 않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쪽을 돌아 본 적이 없을지도. 이방인으로 사는 결의 같은 걸까. 힘내렴, 하고 큰소리로 외쳐주고 싶지만 꼭 참았다. 아직 갈 길은 멀어. 저 녀석의 결의를 조금 배우면서 으쌰, 나도 책상으로 향한다.

살다 보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남을 원망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이런 나는 싫어, 이런 사람으로 키우진 않았을 터. 부탁이니까 더 큰 사람이 돼줘!’하고 내가 나에게 얘기한다.

어제 저녁 식사 때, 여덟 살 꼬마란 걸 잊고 한 시간 동안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나도 능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난처했습니다. “애야,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이 있단다.”라고 설득하는 데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능력’이라는 말을 가르쳐 준 걸까요. 가끔 헉 소리 나는 말을 합니다.

맑은 추우니까 오늘은 아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노래하고 싶다 하여, 둘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너에게 감사해’라는 곡입니다.

집안일은 미룰 수가 없네. 그것이 사는 것. 마감은 미룰 수 있는데 말이지.

먹고 나면 정리하고, 놀고 나면 정리하고, 살았다면 정리하고. 주부 작가.

한밤중에 아이 방을 슬쩍 들여다봤더니 아들의 눈이 떠져 있었다. “왜 안 자니?” “프랑스라는 시를 만들었어.” 들여다보니 프랑스어 시였다. 아름다운 거리와 신나는 학교생활을 노래하는 아이다운 시였지만, 반드시 ‘나는 혼자’라는 시구가

반복됐다. ‘이게 나의 전부, 왜냐하면 나는 혼자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아무 생각 없이 쌀을 씻었다. 저 멀리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이게 나의 전부, 왜냐하면 나는 혼자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잘 살았습니다. 널 봐요. 좋은 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자!

‘뭔가 좋은 일 없을까’하고 어릴 적 매일 생각했었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있어도 좋은 일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너는 기다리지 않아!

그러고 보니, 어젯밤 아들이 “아빠, 내일은 뭐가 있어?” 하기에 “내일이 있지”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도 끝은 없습니다. 수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주부작가는 생각했습니다. ‘고집쟁이’, ‘허세 쟁이’ 이 두 가지 ‘쟁이’에 대해. 그러고 보니 과거의 나는 허세를 부리려고 고집을 부려왔었구나. 고집쟁이, 그래도 괜찮아. 허세 부리지 않는 고집쟁이고 싶구나. …………… 단호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 하지만 절대 의지를 꺾을 순 없습니다. 평소에 이 점이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 최대의 문제지요. 아, 살아가는 데에도.

고민하지 않는 일은 없구나. 하지만 왜 고민했는지 모를 때도 종종 있단다. 뭘

찾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도. 그렇게 쉽게 잊히는 걸 보면 분명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을 거야, 하고 매일 변명하고 있지요~.

뭔가 집안일이라는 거, 하루에 활기를 주네. 아침은 슬슬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고 밤은 인제 그만 내일을 위해 자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분명 농사 같은. 그리고 언젠가 인생을 수확하는 거야.

자, 인생을 수확하렴!

요즘 엄청난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다. 정신이 들고 나면 또다시 이불 속. 그런 나이인가. 어쨌든 하루하루는 계속해서 흘러간다. 하려고 정했다면 바로 시작해야지, 안 그럼 끝나버리고 만다. 학생 땐 '5분'이 그렇게 길었는데.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엄청 많다. 해야겠다.

사실 조금 기죽어 있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죽어 있다고 생각하면 지는 거니까 기분 탓인 걸로 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기운이 났는지도. 쓰는 일은 혼자 하는 격투기. 후~.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봐요... 잘 살았습니다.

전력을 다해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나면 방심하게 된다. 그리고 방심한 나머지가 사라지고 나면 또 채우고 싶어,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지금 여기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에게 맥없이 배신당하고 말았다. 살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지만 또 인가, 하고 생각하면 허무하다. 좀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내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 내 사람을 팔지 않는다. 이게 저의 철칙입니다. 뭐, 록(rock)이라도 들을까요? 갈색빛 럼(rum)이라도 한잔하면서.

그리고 보니 예전에 <일회성 친구>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제 필요 없어진 친구가 오늘 반대편 강가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라는 등의 실없는 시였습

니다. 믿었더니 속고, 배신당해도 믿고. 그래도 속이는 것보다는 낫지, 하고 웃으며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늘 같은 장소에서 늘 같은 개가 짖었다. 늘 가던 빵집 앞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늘 가던 카페 테라스에 늘 같은 사람이 있다. 늘 달리던 코스를 달렸다. 심한 감기 후 몸이 회복되는 과정과 닮았다. 내 몸속 구석구석에 의식이 흐르는 느낌. 아침 찬 공기에 몸이 움츠러든다. 나와 화해하는 그 느낌.

뛰기 전엔 왜 그렇게 꾸물거리는 걸까. 뛰고 나면 이렇게 상쾌한데.

울 한해, 힘내자, 라는 말에 힘을 얻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감동하고, 힘내자, 라는 말에 용기를 얻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받고, 힘내자, 라는 말에 지긋지긋해졌다가 그래그래 하고 분발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힘내자, 라는 말이 등을 밀어줬다가 등 돌렸다가, 힘내자, 라는 말에...

울 한해 ‘좋은 아침’이라는 한 마디가 얼마나 날 살렸는지. 울 한해 ‘잘 자’라고 한 마디 속삭일 수 있는 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매일의 최선이 내일로 이어진다고 믿었던 한 해. 좋은 아침으로 시작해 잘 자로 끝나는 매일. 내일로.

도시를 소설로 그리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냄새를 떠올립니다. 뉴욕은 특유의 지하철이나 빌딩 안에서 피어나오는 강렬한 냄새, 파리는 센강이 전하는 바람과 골목을 돌아 나온 바람이 뒤섞인 냄새, 런던은 비와 안개의 눅눅한 냄새, 도쿄는 왜인지 금목서 향기.

열심히, 라는 말은 아슬아슬한 정도가 아니라 있는 힘 전부라는 뜻이지만, 악착같이 필사적으로 하는 것과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 상쾌한 느낌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해본 후 안 될 때는 내일 다시 힘내자는 느낌일까나. 열심히 살자.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하는 말.

어제 친구에게 “너는 유혹보다는 도발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뭔가 기뻐다. 무슨 말인지는 나만 알지만, 어쨌든, 생각지 않게 도발이 됐다. 친구야, 고맙다.

“저기, 아빠, 최선을 다한 후에는 뭐였지?” 하고 묻는 아들.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란다.” 하고 답하는 나.

‘뭐든 납득할 때까지’ 이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일도 노는 것도 납득할 때까지 절저하게. 납득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하지 못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맞서 싸웁니다.

열심히, 라는 건 가능한 한이라는 뜻이야. 즉, 할 수 있는 한으로 충분하단다.

매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 작가라는 사람이, 나도 종종 고민해. 하지만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없으니까 항상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납득하는 일이, 설령 달성할 수 없었다 해도 중요한 일이기도 해. 남은 건 내일이 맡아줘. 그래서 내일이 있는 거란다.

어렸을 땐, 다음 신호까지,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소설도 차근차근 꾸준히 다음 신호등을 목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도착할 거야.

달리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에게 느닷없이 세계 한 방 맞았다. 가볍게 피했기에 다친 곳은 없었다. 순간, 움찔했지만 참았다. 그 사람은 큰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인 채 걸고 있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일은 하지 않아. 떨어지는 불뚱은 가볍게 피하면 돼. 그에게 행운을.

풀 죽어 있어도 괜찮단다. 사람이기에 당연한 거야. 하지만 상처받을 만큼 풀 죽어 있을 필요도 없단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물음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물음 그 자체는 모

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물음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나를 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지나가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궁리하며 지내느라 하루가 끝날 것 같습니다. 살짝 모자란 열심히 같은 느낌. 그런 날도 중요합니다. 단 하루 만에 답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르고 있는 산의 위쪽을 생각하며 오늘을 납득합니다.

몇 줄 쓰는 데 몇백 번 눈을 깜빡인다. 이미지가 떠오를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다 쓴 원고를 다시 읽어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백스페이스키를 누른다. 새하얀 화면이 종종 사막으로 보이기도. 거기에 또 첫 글자를 타이핑하고. 언젠가 사막을 숲으로 만들 거다.

밴드 같은 작은 세계에도 인간관계는 있으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탐색하고 함께 웃으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사이좋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걱정(心配)은 마음을 나눈다(心を配る)고 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 나누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시험당하고 있네요, 오늘도. 이것저것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필사적으로 생각하지만 쉬운 답은 없네요. 시험당하고 있는 것에 맞서 도망치지 않는 것밖에 지금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육교 위에서 우산을 쓴 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모험은 장소를 옮기는 것만이 아니란다.

어떤 때에도 항상 냉정할 것, 동시에 어딘가에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이런 마음의 균형과 자세가 좋습니다.

내 일조차도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람을 믿는 건 더 어렵다. 살아간다는 건 매일 매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구나. 쉽게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지만 나도 모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나다. 나.

사람이 사람을 믿기는 쉽지 않다.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깔보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울고, 결국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하지만 사람도 사람. 사람이 사람. 사람은 사람. 일단 믿고 싶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오전의 햇볕이 세지 않고 맑아 산뜻하다. 포근한 봄날이 될 듯하다. 눈을 감으면 빛이 어루만지듯 슬쩍 다가온다. 천천히 심호흡. 자, 오늘을 위해 준비를 시작해보자.

열심히 살고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하고 생각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곧게 쪽 펴보지만 중력이 자꾸만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지구를 의식합니다. 한 번, 심호흡 해 보세요.

살다 보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성가신 일이 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 이것도 피할 수 없네. 그래서 인생에는 우산이 있지!

이렇게 비가 퍼붓는 날엔 마음에도 우산을 씌우자.

어려운 문제가 인생을 긴장시킨다.

‘꽝꽝대고 있어도 소용없어’하고 열 번 외쳐 본다.

무너질 것 같을 때는 쓸데없이 애쓰지 말고 깔끔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망설임 없이 30분 정도 시간을 갖습니다. 밑바닥이네, 하고 막부 말기의 사무라이처럼 소리치고 억지로 기분을 바꿔 ‘꽁꽁대고 있어도 소용없어. 일생은 한 번, 사는 것도 썩는 것도 너한테 달렸어’하고 열 번 외쳐봅니다. 35분 만에 보통 재가동.

고대인이 이 달빛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광대한 빈터, 높이 솟은 것 하나 없고, 멈춰 선 사람들은 잠들기 전까지 단지,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겠지요. 달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들을 오늘 밤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떠올리기에 안성맞춤인 밤.

내가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뀐다. 산 위에서 배웠습니다.

종종 좌절합니다.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자버리기도 합니다. 축 쳐져 있습니다, 이놈의 고집 때문에. 하지만 내일은 다 잊고 상쾌하게 일어나 주겠다고 기합을 넣으며 잠듭니다. 힘든 건 오늘 하루만이라고 정해 놓고 좌절합니다. 일본어로 내일(明日)은 밝은(明るい) 날(日)이라고 씁니다. 어두운 나는, 안녕.

체력이 남아도는 아이에게는 가능한 한 멀리 공을 차줍니다. 녹초가 되도록 뛰어노는 것이 아이의 일. 아들, 뛰어!

아들이 옆에서 프랑스 버라이어티 방송을 보며 깔깔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그 정도까진 이해되지 않는 나는 웃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8년밖에 살지 않은 아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 불가사의함. 아들 선생님...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

몰입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에도 발끈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목숨 걸고 덤빌 수 있는 것,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 필사적일 수 있는 것, 폭 빠질 수 있는 것, 그것만 생각나게 되는 것, 항상 찾아왔지만 지금, 더 열심히 찾

고 있습니다. 녹초가 될 때까지 오늘을 아낌없이 다 쓰고 싶어. 지금, 이 순간.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수 없듯이 사람 수만큼의 다양한 결말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행하다고도 행복하다고도 할 수 없다. 마지막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피식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을 나는, 살고 싶다.

열심히 살자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사실은 더 많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을 극복할 뿐. ←이거,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 기분을 전해주고 싶은 오늘 이 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 작지만 거짓 없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

허영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허영을 부려도 결국 걸만 번지르르. 실체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것에서 시작해볼까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 가면 됩니다. 겹쳐,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자.

“아빠, 아빠는 회사 없어?” “없단다.” “언젠가 내가 만들어 줄게.” “언젠가 내가 만든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렴.” “좋아. 재미있는 것들 회사에서 많이 많이 만들어도 돼.” “그거 굉장한데. 아빠는 엄청 우수한 직원이 될 거야.” “직원이 뭐야?” “멤버야, 같은 목적을 향해 꿈을 꾸는 동료.”

동경한다는 건 좋아하는 것과 달라.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나 사람이나 상태에 더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란다!

“아빠, 젊음이 뭐야?” “살아가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많다는 것이란다.” “발견이라는 건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엄청 재미있는 일들이 아직 많다는 걸

알아채면 알아채 만큼 사람은 젊어진단다. 아들아, 너는 매일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젊은 거야.”

불평? 잊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말입니다. 말해도 소용없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하려고 다짐했을 때, 저는 언제나 활기를 찾습니다. 특히 처음 하는 일에 도전할 때가 가장 활기칩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런 반복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겠지요. 힘든 현실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그것마저 행동력으로 바뀌버립니다.

어제,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미안합니다, 가 돌아왔습니다. 인연이 끊이지 않아 다행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 미안합니다, 는 돌아오지 않았겠지요. 그 뿐이었지만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에는 의미가 있고, 의미는 역사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사람은 깊은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년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본다. 지금은 꽤 어른이 되어 버렸다. 이런저런 일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멀리까지 왔다. 하지만 가끔 소년 시절 내가 나타나 나를 보고 웃는다. 비웃는다. 하하하. 멋지게 늙어주지.

후회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해도, 반성은 합니다. 반성도 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정도로 자숙합니다. 그 후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좋아, 하고 기쁨을 넣고 다시 전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두려워했어도 괜찮았을까나.

‘고마워’라는 말은 어떤 때에도, 어디서도, 몇 번이라도,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는 한 영원히 쓸 수 있는 말이네요. 세계 각국의 ‘고마워’, 감사의

말을 외우는 것이 나의 여행 목적.

자 걸어볼까, 하고 생각할 때, 항상 오른발부터 한 발 내디딘다.

오늘이라는 날을 끝까지 다 쓰자, 하고 지금 생각했더니 뭔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기진맥진해야만 잠드는 어린아이처럼, 출발합니다. 오늘은 누구와 만나 누구와 악수할까. 재미있는 일은 스스로 만들고 싶다고 정한 아침입니다.

기적은 매일 그 안에 있어. 하지만 기적이라고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뿐. 나도 기적의 일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삶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빛이 비칠 거야.

또다시 미아. 이 길, 가야 하는 걸까?

꿈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뭘까, 하고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다. 함께 기뻐하는 것, 기쁨 속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분명 인간적인 것입니다.

밤은 잠들기 위해 있다. 노래는 부르기 위해 있다. 아침은 다시 살기 위해 있다.

달과 태양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거울입니다.

멍하니 쌀을 씻는다. 쓸데없는 생각 앓고.

아들을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 쾌청한 하늘을 혼자 올려다본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문득, 마법사였던 것이 떠올랐다.

모두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가볍게 부딪히고 나뉘면서 큰 연결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은 전체가 되어 서서히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다.

아침부터 계속 ‘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상으로 끝나버리기 일췌였던 과거의 나를 되돌아봤습니다. ‘이상’은 항상 멀리서 빛나는 손 댈 수 없는 별인 걸까? 이상은 이상인 걸까?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상에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와 그 길이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인내는 시간.

재미있네, 한자라는 거. ‘바쁠 망(忙)’이 마음(心)을 잃는(亡) 것이고 그 마음을 밑으로 가져오면 ‘잊을 망(忘)’.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하지만 또 좋아졌다가, 그래놓고 다시 싫어졌다가.

나에게 있어 ‘기쁜 일’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일까나. 이해는 만족을 가져오고 만족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가끔 잃어버려도 괜찮단다. 나도 자주 잃어버린단다. 모험가는 출발한 대륙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모험가란다. 그리고 분명, 그렇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거란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일까 생각했다. 여정이라고 해도, 걸어온 여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런 것에는 흥미도 없어. 그러니 하지도 않은 일을 후회할 수도 없어, 하고. 하늘이 내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말은 ‘영원’입니다. 뭐든 “영원?”하고 물어옵니다. “있잖아 아

빠, 저건 영원해?” “아니, 영원하지 않아. 한계가 있단다.” “그건 영원하단 거야?” “아니, 영원이 아니랍니다. 곧 끝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는 중일까.

왜 나는 또 오늘을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버리는 걸까.

너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두려워 말고 즐기는 거야. 거창하게 생각 말고 평정심을 갖는 게 최고.

나에게 친구란, 비밀을 하나 이상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비밀인데”라는 입버릇. 뭐지, 이런 가벼움? 비밀을 지켜줬으면 하는 절실함이 있긴 한 걸까. 친구는 내 약점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건가, 하고 생각해 본 적 없기에 뭐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결론은 친구를 구분 짓는 건 의미가 없어. 다 제각각!

“자, 어떡할래?” 하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버릇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언제나 곤경을 즐기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건 그렇고, 곤경이야말로 전기(轉機). 구를(轉) 기회(機會). 데굴데굴 나아가라, 나 자신.

공통된 친구가 없는 사람을 아는 것은 작게나마 인생의 폭을 넓혀줍니다.

뭐든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해낸 사람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다가옵니다.

가능한 한 멀리 바라본 뒤, 내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멀리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걸 반복한다. 이렇게 나는 세상과 나 자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 있다. 진심이 아닌 나는 싫어.

가끔 누군가에게 속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속이는 사람은 슬퍼진다. 속는 나 자신이 슬퍼진다.

기분 전환하는 법. 높이, 멀리, 빛나는 것을 바라볼 것.

가끔은 뻔뻔스러워 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뻔뻔해진 후의 절묘한 착지엔 반드시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뻔뻔스럽기만 해서는 언젠가 산산이 흩어지나니! 아름다운 꽃처럼.

사람에게 말문이 막히고 사람에게 한탄하고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 희망을 얻는다. 아아, 나도 사람이구나.

우체통에 우편물을 던져 넣는 순간이나 햇살에 눈을 빼앗긴 순간, 교차로에서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가끔 사라져 버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현재에 아무런 불만도 없는데 이상하네. 하지만 실제로는 사라지는 일 따위 없이 우편물을 던져 넣고, 눈을 비비고, 교차로를 그냥 건너갈 뿐이다.

답답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비굴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바꿔 생각해 보면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답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은 세상에 한 걸음 내딛고 싶습니다.

“아빠,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귀여웠어? 아니면 보통? 아니면 안 귀여웠어? 자, 뭐야?” ←저기, 지금 뭘 시험 당하고 있는 거지?

세상을 통해 나를 바라본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소리를 내는 때와 소리로 내지 않고 멍하니 생각하는 때의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후자는 우주가 형성되는 것 같은 상태 속에서 무언가가 훑히고 나타나는 것 같은 일인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보통 이때. 문득 떠오르는 것=생각이 훅 달라붙는 것.

‘지금 이 기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사실은 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가능성이 숨어 있다.

타인의 평가는 대체로 그 반대입니다, 특히 안 좋은 평가의 경우. ‘자신감을 갖다(自信を持つ)’라는 일본어는 스스로(自ずと) 믿고(信じて) 갖는다(持つ)고 씁니다. 강한 신념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평가를 퇴색시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벽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할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의 길을, 일단 그만둡니다. 그것이 옳은지 어떤지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판단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디든 통하는 길입니다. 가능성은 마음먹기 나름으로 무한대.

그러고 보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관해서는 그 전에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바로 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애써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은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때는 대체로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망설여질 때는 그만둡니다. 하지만 고민될 때는 필사적으로 해봅니다. 뉘앙스의 차이지만 망설여지는가, 고민되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잡는 말과 실제로 내가 무언가 시작해 버렸을 때의 기세에는 시차나 오차가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시작할 수 없을 때도, 나는 일단 시작하고 나면 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잘 안됐을 때의 반성도 사람답게 성대하게 합니다. 성대하게 잠을 잔다든지….

사랑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 젊었을 땐 수다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관찰합니다. 말이 보여주는, 사람의 의외의 약한 모습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는 동물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은 힘들지만 해내고 나면 거기에 빛이 드리워집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어도 날씨가 다르면, 햇살 아래 기분 좋은 지금도 있고 태양이 구름에 가려 매서운 바람이 불어 얼어버릴 것 같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화창한 햇살을 마음에 그리려고 합니다. 아자.

좋은 아침, 하고 중얼거렸지만 여기는 한밤중. 등이 모두 꺼진 어두운 집안에서 유일하게 빛이 새어 나오는 아이의 방을 들여다본다. 당연한 듯이 아들이 자고 있다. 걷어찬 이불을 잘 덮어주고 나와 주방에서 물을 마신다. 그리고 잠시 밤에 귀를 기울인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가끔 불만을 털어놓는 부정적인 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균형이라고 생각하기로.

주변에 소설가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이, 가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프로를 목표로 하는 것만이 소설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사진이나 그림처럼, 나의 기쁨을 위해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꿈이라고 부릅니다. 꿈이 있으면 무균실(無菌室)을 무한실(無限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대체로 우쭐해져 있을 때나 정신없을 때,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실패할 거라면 철저하게 창피할 정도로 실패하려고 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 그리고 나면 두 번의 실패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다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하고 북돋우는 중.

설령 그게 뭐든, 항상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건 나에게 중요해. 목표라고

할 정도로 거창하지도 않고 꿈이라고 할 정도로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무언가. 그 조그마한 무언가를 소중히 간직하고, 항상 어딘가를 향해 가고 싶어.

지금 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부딪힌 듯한 느낌. 가끔 느낀다. 왜 그, 몸이 어느 쪽의 명령에 따르면 좋을지 모르는 느낌. 멍하니. 주방으로 가 냉장고라도 들여다볼까. 편안해진다. 한밤중의 냉장고...

스물셋 때 '천칭에 단 지구의'라는 곡을 만들었었지. 그때부터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조리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나의 천칭으로는 계측할 수 없는 것들이 늘었습니다.

1초의 의미. 1분의 인내. 1시간의 시련. 1일의 평온. 1년의 노력. 1생의 감사. 고마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일도 없는데 말이지. 적어도 너무 기대하지는 않으며 살아갈 뿐. 아자.

하지만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아자자.

아들아, 승패에 연연하게 되는 건 알겠지만 무승부도 좋은 방법이란다. 무승부로 이끌어 가면서 더 잘 될 때도 있단다.

둔감력(鈍感力)이라는 게 있다. 그거, 조금 가졌는지도. 필요 없을 땐 둔감한 게 최고.

가능한 일을 가능한 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하루로 만들고 싶다.

아침 8시인데도 아직 어둡네. 이제 아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

고 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같은 것을 반복하며, 나는 지금까지의 일이나 앞으로의 일을 자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는 사색을 위한 수련장.

세상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것은 별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 내 손바닥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거기에도 은하가 보입니다.

밤의 망설임을 아침에 푼다. 아침의 걱정을 밤에 어루만진다.

오랜만에 작업실 청소를 했다. 물건을 버렸다. 서재를 정리했다. 창문을 닦았더니 환해졌다. 아주 작은 일에 기분이 변한다. 가끔은 하루하루를 재가동.

망설여질 때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될 때는 큰맘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시간이 아까워 참지 못했습니다. 씨는 심었지만 자라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 모든 것이 어중간했습니다. 요즘은 꽃이 피는 걸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 나면 코스모스였구나, 하고 놀랄 때의 소소한 기쁨.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일부러 조금 다른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게 일찍 일어난다거나 하는. 다른 아침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진단다. 아들아.

나가다(出る) + 만나다(會う) = 우연히 만나다(出會う)

인생에서 미리 확실히 알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옆에 웃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웃고 싶어진다. 옆에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노래하고 싶어진다. 옆에 기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운 내야지 하고 생각한다. 옆에 하품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품하고 싶어지잖아, 왜.

진실은 하나,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무한.

아들이 다가와 아빠, 전쟁은 절대 안 돼, 하고 세계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뜬금없는 정의감에 가끔 힘을 얻습니다.

다음 이야기. 아들을 쫓아가 되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 “왜라니?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걸 용서할 수 있어? 서로 죽이는 건 잘못됐어. 전쟁을 없애기 위해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랍니다. 요 녀석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습니다.

“아빠, 희망이 뭐야?” “살려고 하는 힘이란다.” “계속 있는 거야?” “영원히 놓아서는 안 되는 거란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아빠, 나는 희망을 놓지 않을게.”

희망은 있다.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념 속에.

좌절과 절망은 달라. 절망은 안 돼. 좌절해도 끝난 건 아니야. 길을 바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면 돼. 도착하기 위한 길은 무한….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길은 있다고 꿈속에서 의문의 택시 운전사가 말했다. 그것만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시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은 널려 있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거다. … 하고, 꿈속에서 그 택시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게 되는 건 정말이지 괴롭다. 말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라는 것도 무섭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기가 흐려지지 않기를….

“저기 말이지, 사람들이 슬픈 건 당연한 거야”라는 작가 친구의 입버릇, 그다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가끔 떠올라 중얼거리다 보면 ‘그러네. 그래서 슬퍼지지 않도록 힘낼 수 있지’하는 생각이 들어 신기합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내일 또 봐’,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오늘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함께 내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맞다, 아들이, 좋은 사람들과 사귀면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루하루, 너무 기뻐하지 않고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아빠는 갑니다.

인생은 정말이지 계속해서 사정없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때라도 즐기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떨쳐 버리기 위한 즐거움을 찾고 싶어.

‘누구의 탓도 아냐’, 하지만 사실은 ‘모두의 탓’이기도. ‘내 탓이 아냐’, 하지만 사실은 ‘내 탓’이기도 한 이 세상 ...



편해졌습니다

(2013년)

행복은 힘든 인생 안에서 생겨나는 것. 다시 말해, 행복은 불행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생물.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은 없다. 행복을 찾는다는 말이 좋다.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않은가.

무심히 쌀을 씻었다. 아아, 편해졌습니다….

한 해의 계획은 새해 첫날에 세울 일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앞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울 일이다, 라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울 일이고 한 해의 계획은 새해 첫날에 세울 일이다. 아빠는 매일 아침 작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아는 것을 전부 떠들어대지 않는다. 경험한 것을 전부 말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자랑하지 않는다.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 편해졌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은 것보다 많다. 모르는 것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많다.

어젯밤,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순간, 왜 놀랐는지 알 수 없었다. 숨어 있던 어떤 감정이 반응했던 것이다. 마음의 충격은 서서히 온다. 하룻밤 지나 내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중. 나를 제일 모르겠다.

‘기력’이란 말은 근거도 없으면서 힘 있는 울림.

만약 그 사람과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면 인연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인생 속에서, 만나는 것에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직할 것, 솔직할 것, 거짓 없을 것.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로 함께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건 기력.

아들아, 기력이 고갈됐을 때는 자는 게 최고란다.

정신없을 때 종종 ‘편해졌습니다’하고 종이에 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결론이 납니다. 낙착(落着)입니다. ‘안정됐습니다’라는 표현도 좋네요. 뭔가 후련하게 정리된 느낌….

요즘 아들놈이 유난히 일본 속담에 빠져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근묵자흑이니, 외운 속담을 마구 쓰고 있어 회화가 묘하게 딱딱하다. 거기다 사양할 때, 프랑스어 대신 서툰 일본어를 자주 쓰는 탓에 아는 체하는 도련님 낡신 꼴이다. “아들, 이거 먹을래?” “아니, 거절합니다.” 소생, 대략 난감.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웃는 게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무서운 사람이 생각지 않게 웃어주면 하루가 기분 좋아집니다.

아들의 생일입니다. 곧 일어나기에 축하해, 하고 말해봅니다. ‘축하해’는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네요.

좋은 아침, 이나 잘 자, 라는 말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좋습니다. 좋은 아침, 이라는 말 속에는 상냥함이 있고, 잘 자, 라는 말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전해질 뿐 아니라, 분명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여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좋은 아침’에는 하루를 여는, ‘잘 자’에는 하루를 닫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열고 닫으면 하루가 꽤 알찹니다.

조금 늘어진다. 뭔가, 조금, 한계다. 축 늘어져 있는 나를 너그럽게 보고 있다. 이럴 때도 필요해, 하고 타이르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도저히 어떻게 되지 않는 경우라는 게 있다. 그럴 때는 빨리 기분전환을 한다. 짧은 인생, 풀 죽어 있을 여유는 없어. 웃어 날려버리는 거야. 아들아, 그곳에 가는 길은 무한하단다.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운이 없어도 인연(因緣)이 있다면...

심장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대단해! 내가 게으름 피울 때도, 불만에 토라져 있을 때도, 달리고 있을 때도 계속. 소중한 게 살아야지. 고마워.

인연이 있다면 운은 따라 오는 것이다. 인연과 운에 대해 오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인연이 있어야 오는 것.

아들아, 너의 길을 가라!

비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웃는 얼굴을 믿었어. 지금도 믿고 있어. 같이 힘내고 싶어. 사실 나이 따윈 중요하지 않아.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야!

이 세상의 불합리한 현실이 모두 거짓이라면, 하고 생각하는 만우절 아침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스스로 자신을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힘겹구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지 않아, 라는 등 중얼거리곤 합니다. 요즘 자주

그립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어릴 때부터 항상 왜? 하고 계속 생각해 왔다. 분명 죽을 때까지 왜? 하고 계속 질문하겠지.

이렇게 작은 동물에게도 이렇게 큰일이 생기고 마네, 하는 아들.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고 있다. 아기 강아지에게 배운다.

고민하는 건 좋지만 망설여서는 안 돼, 하고 자신을 타이르는 중.

‘내일은 꼭 힘내야지’하고 어제 맹세했던 내일이 오늘. 오늘이라는 하루를 열심히 살자.

아들아, ‘사람(人間)’은 한자로 사람(人)사이(間) 라고 쓴단다.

하지만 언제나 포기하려는 순간을 조금만 지나면 무언가가 있단다.

‘잘 가’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라고 한다. 고마워, 고마워, 또 봐, 라고 말한다.

항상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전할 말을 찾는다. 내 말이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지 상상하면서.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것이 정답일 때도 있다. 결론이 없는 세상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기도 한다.

기다리고 있는 것과 찾고 있는 것뿐인 인생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고, 찾고 있던 것이 갑자기 발견되었을 때, 소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기다리지 않고, 너무 찾지 않기를. 무슨 일이든 인연.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승리.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둔다는 것.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 하지만 이 세상은 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때의 흐름 속에서 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있는 대로, 생각대로, 맨몸이 가는 대로.

마음을 주다. 마음을 갖다. 마음을 열다.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담는다. 마음을 쓰다.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고쳐먹는다.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하나로 하다. 마음을 맞춘다.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울리다. 마음을 통하게 하다. 마음을 쓰다. 마음을 헤아린다.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설레게 하다. ...오늘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만두지 않는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지탱할 때,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내가 격려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인연이라는 게, 살다 보면 계속 누군갈 만난다. 그들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가지고 온다. 좋은 것만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나쁜 것만을 가지고 오지도 않는다. 자, 어서 와라. 새로운 경험이여. 평생, 공부다.

나, 포기하는 건 서툴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기 전에, 다음의 희망을 찾는 성격.

무언가가 내 몸 한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다.

가끔은 다른 길로 돌아가자!

잊어버린 것은 떠올릴 수 없다. 기억하고 있는 것만 떠올릴 수 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다. 가로수가 흔들린다. 열은 햇살이 비춘다. 보사노바를 듣는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토요일 아침. 불어오는 바람에 얼굴을 씻는다. 무심결에 눈을 가늘게 뜬다. 조금만 더, 좋은 날을 보내고 싶어.

가끔 순수는 사악을 이용해, 가끔 순수는 사악을 쫓아낸다.

내일에 한 표.

내일은 오늘 해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첫날.

웬지 새우등이 되어 버렸다. 꼳꼳하게 쪽 펴야지.

힘내, 하고 너에게. 힘내자, 하고 모두에게. 힘낼게, 하고 나에게!

꽁꽁대지 말라 해도 말이지, 꽁꽁대야 할 때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재빨리 일어서는 것. 누구보다 빨리 다시 일어서는 재능이 있다. 꽁꽁대도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재능.

무언가에 실망했을 때, 너무 많이 기대한 내가 있습니다.

활짝 갠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달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달에 비친 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대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모르는 것이, 알게 되도록 만든다.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하고 결론짓지 않는다. 압니다.

지금 올려다보고 있는 달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달일까.
지금 달에게 묻는다.

어젯밤 교토의 달을 올려다보며 인생은 가고 오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가 인생이라지만, 동시에 가고 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
다. 달님이 웃었습니다. 인간은 바쁜 생물이구나, 하고. 아들아.

10대 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 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젠 틀렸어, 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아니야 괜찮아, 가 들려옵니다.

끝이 있는 이 세상에서 끝이 없는 것을.

1, 2, 3, 4, 라는 숫자를 처음에 배웠다. 그다음, 많다, 천, 만, 억을 알았다. 그 후
로 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량이라거나 무한이라거나. 요즘엔 모
든 것, 이라는 말을 즐겨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상상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왠지 모르게
확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
다. 좋은 일이 가끔 생기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
도 적당하면 좋겠습니다.

웃는 얼굴을 하면, 역시 웃는 얼굴이 돌아온다. 웃는 얼굴의 법칙.

의외로 엄청 신경 쓰는 성격입니다. 신경 쓰는 자신에게 지치는 타입. 신경 쓰
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편하네요. 편한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렵습니다, 진심은 또 이 진심이라는 말의 마법이니까요. 있는 그대로라
느니, 말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실제로 진심이 있긴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
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것, 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입니다.

마음, 대굴대굴, 대굴대굴, 마음. 어디 가니?

망설여질 때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

비가 그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뜹니다. 그렇지,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무
지개는 뜨지 않아. 힘내자.

사람은 바라는 동물입니다. 사람 아닌 생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돌파할 때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잠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읊니다. 기분 전환, 중요합니다. 컴퓨
터에서 떨어져 파란 하늘을 보러 갔다 읊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떨어져 보면 신
선함을 되찾을 수 있지요. 새로운 기분을, 찾으려.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다. 태어난 날부터 계속 반복해 왔다. 숨을 내뿜지 않으
면 새로운 숨을 들이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고 내뿜고, 모두, 살아있습니다.

약한 소리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과연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말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해선 안 됩니다. 내뿜은 약한 소리, 힘차게 다
시 일어나기 위한 제일 첫걸음.

생각해 보면 계속 나를 찾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과 세상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모험을 동경했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인생이 모험이 되어있었다.

뭘까. 언제나 맘속 깊은 곳에 ‘이런, 제길’의 감정이 있다. 밖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런, 제길이 나올 때, 나 자신이 엄청난 괴물이 되어있다. 뭐가 ‘이런, 제길’일까.

가끔 ‘지나 봐라’와 ‘열심히 하나 봐라’의 사이에 있다.

거울 속 나는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좌우 대칭의 또 한 명의 나.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다.

한 일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후회는 없습니다. 한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그 전(前)을 찾아 어딘가로 향하는 걸지도.

뭘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의미는 있는가!

아들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단칼에 거부당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매일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봐요, 울기도 웃기도 화내기도 안심하기도.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과 일하고, 남에게 다정한 사람들과 놀고 있습니다.

항상 바지 주머니에 희망을 숨겨 놓고 있습니다. 좌절할 것 같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냐. 열심히 살아보려는 희망입니다. 좌절이나 절망은 희망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 사람이 좌절하는 것은 희망을 놓기 위한 것.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 입니다. 좌절이 희망을 낳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 나에게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꿈.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무도 모르게 좌절하고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몰래 되돌아오는 게 특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은 희망이란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지가 되는 사람도 있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겸손하게 부지런히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 힘들 때야말로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

내 안의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쿵! 으악, 아파.

원망, 실망, 야망, 인망, 지망, 희망. 여러 가지 바람(望)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많지 않은, 드문(希) 바람(望)이라고 쓰는 희망(希望)을 가질 때, 거기에 덧붙이고 희망하지만 미래가 있네요. 희망을 계속 갖는 것이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생, 희망입니다.

생일 축하해. 그대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일의 법칙. 사람은 누구나 365일의 어느 날에 태어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느 날에. 별은 보고 있습니다. 달은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지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을.

2013년의 365분의 1일. 오늘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없을까. 있어도 없어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별거 없지만 소중한 1일.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살라고 해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살게 되고, 지금을 살고 있기에 깨끗하게 살아가고, 끝까지 살아가고 싶다.

생각건대, 희망은 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희망밖에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희망을 향해 가는 걸까요. 고통에서 가능한 한 멀어지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본다. 아,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아, 있다 있어.

사람, 일희일우(一喜一憂)해도 괜찮습니다.

일희일우는 해도 버둥대진 않는다. 다소의 각오는 해도 참진 않는다. 우회는 해도 들렸다 가진 않는다. 비평은 해도 비판은 하지 않는다. 꽤 자주 좌절하지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다.

으음. 하루하루 새롭구나.

아들아, 풀 죽어 움츠린 것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탄성의 힘.

다른 사람 같은 내가 가끔 나타나 나를 격려하거나 놀라게 한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 거울 미로 안에서 나 찾기.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自分), 라고 한다.

모두 각자 크든 작든 떠안고 있는 것이 있다. 제각각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든 오늘을 이겨내고 있다. 혼자라면 쓰러질 것 같지만 누군가가 있어서 괜찮다. 이 누군가라는 건, 새삼 굉장하다. 그 누군가에 나도 포함된 걸까? 모르는 사람과 밀고 당기고, 의지하는 놀이.

천명의 적 따위, 내 편 한 명으로 충분히 해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 정말로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 어디 있지? 타인이라는 사막에 샘솟는 오아시스.

매일 매일, 유성군처럼 누군가와 만나지만 그곳에 멈춰 계속 빛나는 별은 많지 않네. 별을 동경한다. 오늘은 맑을까?

아들아, 믿고(信) 의지하다(賴), 그것이 ‘신뢰(信賴)’란다.

오늘은 기세를 살려 살고 있다.

오늘은 기세를 살려 해보자 하고 마음먹었더니 무거운 문이 열렸다.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던 것이 거짓말처럼 훅하고. 좋아!

‘일체(一切)’를 사전에서 찾으면 ‘모든 것’이라고 나온다. 남김없이 모든 것의 모든 것. 하지만 일체는 단순한 모든 것이 아니다. 하나 자르는 데서 시작되는 모든 것. 이 말은 인도에서 왔다. 중국에서는 만물(萬物)이라고 했다. 일체에는 만(萬)을 넘는 모든 것이 있다. 남김없이 모든 것.

원래 일체는 명사일 때 전부라는 의미로 딱히 부정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사가 되면 부정으로 쓰입니다. 일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생각건대 부정이라는 것은 질문입니다. 일체개공(一切皆空)은 모든 현상에는 실체가 없고 비어있다는 뜻. 즉 질문.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누군가에게 친절해지고 싶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인연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으음. 0은 아무것도 없는 것.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다. 하지만 0이 있으므로 1이 있는 것. '1부터 다시 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0부터 다시 하다'이다. 생각해 보면 항상 제일 첫 한 걸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였다.

기합을 넣다, 기합이 들어가다, 라는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산만해져 있던 기분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지금이야! 할 때 '아자!' 하고 기합이 들어간다. 나를 집중시키는 힘.

요즘 '고맙군'을 입에 달고 산다.

일본어의 '고맙다(有難い)'라는 말은 원래, 있는 것(有る)이 어렵다(難しい)는 뜻에서 왔다. 곤란하다는 의미다. 그것이 변하여, 혼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의 말로 쓰여 왔다. 있기 힘들고 곤란하여 어려운데도 해주었구나, 얼마나 고마운가, 가 된다. 마음에 감사. 내 옆의 세상에.

'삶에 빠져들다' 이것이 아빠의 좌우명.

'결의를 새롭게'라는 말도 좋구나. 기분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실망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는 이런 일로 실망하는구나, 하고 나에게 놀랐다. 아직 많이 미숙하구나, 하고 나를 질타했다. 웃었더니 실망이 사라졌다. 뭐야, 별거 아니잖아.

나를 격려하는 천재가 되자. 나를 북돋우는 천재, 나를 지켜세우는 천재도, 좋구나.

아들아.

이 얼마나 사람답게, 어디까지나 사람답게.

그래, 비 오는 날엔 우산이 있어. 바람이 세찬 날엔 모자를 쓰고, 추워지면 목도리를 하자!

무너지기 선수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일등 선수입니다.

내리다 그쳤다, 울다 웃다, 축 쳐졌다가 밝아졌다가, 배고팠다가 배불렀다가, 끔끔대다가 말끔히 사라졌다가, 절망하다가 희망하다가, 낮잠 잤다가 밤새웠다가, 사자였다가 새끼 고양이였다가, 싫다가 좋다가, 자, 한 번 더 힘내볼까.

참으면 안 돼. 할 말은 하렴. 타이밍만 잘 맞는다면 상대방도 들어줘. 잠깐의 응어리보다, 길게 본 신뢰.

집착은 버리자.

왜 폼 잡게 되는 걸까. 자연스럽게 있으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지고. 도대체 나답게는 무엇인가. 나, 재미있지만 모르는 것투성이.

사람은 뭘까. 뭔가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사람은 뭐냐고!

들판(野)에 나가는 마음(心),이 야심(野心)의 시작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원래 야심은 황야를 거침없이 나아가는 큰 뜻이라는 의미였을지도.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늘.

기운 넘치는 사람과 만났더니 기운이 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헤어질 때

“기운 났어, 고마워”하고 말했다. 이럴 수 가.

그렇군요. 가 요즘 입에 붙었다. “다 팔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악이에요” “그렇군요” “굉장해, 멋져” “아, 그렇군요” 물음표는 붙지 않는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초심을 떠올린다.

오늘은 아직 아침부터 한 번도 웃지 않았다. 하루 한 번은 마음으로 웃고 싶다. 순수하게 웃을 수 있을 때 가장 순수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로 끄꿍대지 않는다. 하지만 큰일에는 있는 힘껏 끄꿍댄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투성이네, 이 세상.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늘 생각하지만, 못 하는 일은 있다. 못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도 한다.

아들아,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마라!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중요하다.

친절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착한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덕 있는 사람이 친절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안다.

가능한 한 집념은 갖고 싶지 않다. 하지만 신념은 잃고 싶지 않다.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간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또 자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눈을 뜬과 동시에 또 아침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 떠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이 있었다. 지금도 다 떠안을 수 없을 정도의 현실에 휘둘리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해, 하고 작게 중얼거린다.

방금, 아들이 일어나서는 “아빠, 나는 발명가가 되고 싶은데, 세상이 엄청 편리해서 더는 새로운 발명이 떠오르지 않아” 하고 말합니다. “근데 아빤, 부를 게 없을 때야말로 새로운 노래가 만들고 싶어지던데” 하고 말해줬습니다. 꼬덕이는 아들. 자 그럼, 아침밥을 만들어 볼까.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한다. 이루어지면 기쁘다. 하지만 그때에는 양쪽 다 꿈이 아닌 게 된다. 꿈은 이루어지기 전, 이루어지지 않기 전이다. 꿈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아니라. 꿈을 갖는 것이 사람의 희망입니다.

아들아, 한 번쯤 반드시, 끝까지 네가 생각한 대로 해 보렴.

생각한 대로 해보고 잘 안됐다면, 첫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깔끔하게, 큰 맘 먹고 방법을 바꿔 보렴.

언제나, 어떤 때에도, 희망을 찾아 왔다.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얼굴이 위를 향한다. 그런 위를 올려다보는 느낌이 좋다.

예전에 《힘내나 봐라》라는 문고본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힘내, 힘내’하는 시대에 대한 반발로 썼습니다. 하지만 힘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아, 라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상당히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도 시간과 함께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심이 강해서 ‘이

기고 싶어'였고, 지금은 '오기'로 인해. 지금의 오기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어떻게든 생각하는 곳에 이르게 하고 싶은 '바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경쟁심은 지금도 여기에 있네요.

아들이 부르고 있는 '좋잖아, 좋잖아, 멋지잖아'라는 구절이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 중.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하고 납득하는 나.

사람이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이기를.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행동해 버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식당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추천에 100% 따르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말 많은 이 세상.

나는 다른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구나. 주위를 둘러보면 거기에 내가 보여 신기하다.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모르개 따라 웃게 되고 만다.

오늘은 종일, 방 청소.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 없어진 것들을 큰맘 먹고 버리고 책상 위치를 살짝 옮겼다. 평소에 하지 않는 일로 기분전환을 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뭔가, 작년에도 같은 날이 있었지. 아, 재작년에도. 뭐, 어때.

생각해 보면 사람은 기다리는 동물이다. 평생 기다리고 있다. 나도 이것저것 기다리고 있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아. 그러는 사이, 잊을 때쯤 기다리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다거나 하면 좋지.

힘에는 힘으로 대항할 수 있어도 마음은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의 마음

을 움직이는 것은 기력일까. 좋아, 신념과 끈기와 기력으로 가자.

아들아, 기회는 잡으러 가는 것.

처음에는 모두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코미디, 써보고 싶다. 웃겨보고 싶어. 하지만 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보인다. 눈물 날 정도로 웃기는 걸 써보고 싶다.

‘운명은 하늘에 맡기고 대범하게’, ‘오는 사람 안 막는다’, ‘일단 부딪혀봐라’, ‘그때그때 되는대로’ 등 종종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는 사람 잘 막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부딪혀 깨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져도 그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담하고 신중합니다.

도(道)라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솔직히, 이제 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많다. 빨리 좀 얘기하라고, 라는 생각을 하며 새삼 느끼는 부조리. 하지만 옷깃을 바로 세우고 하나하나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인생. 귀찮은 일들을 극복하는 힘이 살아간다는 것. 우오오 오오오오, 질쏘냐!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오늘에 몰두하는 것으로 작은 좌절과는 안녕. 질질 끄는 것은 나답지 않으니까. 렛츠고.

운명(運命), 목숨(命)을 움직이는 것(運)이 운명인 걸까?

움직이는 목숨이 운명이라면 머무는(宿) 목숨(命)이 숙명(宿命). 노력으로는 바

꿀 수 없는 것이 숙명인가 보다.

술집 화장실 벽에 ‘네가 나빠’라고 쓰여 있었다. 오오- 맞았어!

나를 격려하는 천재가 되고 싶다.

잘 살았구나, 하고 생각할 때와 잘도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있어야 하는 건 감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말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 아래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가까워지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조금 멀어진다.

제대로 실력 발휘 중. 그래야지. 좋아. 지나 보라.

마음이 대굴대굴 구르고 있다. 진정하렴. 괜찮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몇 살이 되어도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이런저런 일 가득하다. 산뿐이거나 계곡뿐인 건 아니야.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 거야. 좋아.

‘편해졌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서 중얼거리면 왠지 안정된다. 안정되지 않는 나를 과거형으로 하고, 안녕.

무언가를 잃을 때, 사람은 무엇을 잃었는지 바로는 알지 못한다. 서서히 알게 된다. 그거면 돼.

잘 잤다. 힘들 땐 자는 게 최고. 여긴 아침 6시. 세상은 소리하나 없이 조용히 가라앉아, 거기다 칠후 같지만, 내 몸속에 새로운 기백이 넘쳐흐르고 있다. 아침이 다가온다. 좋아!

Me (2013)



Big Hair

Me (2014)



me (2015)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네이버, <http://www.naver.com>

네이버지식백과 해외저자사전, “쓰지 히토나리”,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546&categoryId=44546>

goo國語辭書, <https://dictionary.goo.ne.jp/jn/>

weblio辭書, <https://www.weblio.jp/>

yahoo!japan, <https://www.yahoo.co.jp/>

日本語抄録

「おはよう(2010年／2011年)」は、大変な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まだ不慣れなパリでの生活だが、一つ一つ前進しようとする父と息子、二人の物語だ。小學生の息子を送り迎えする度に心配する父とは違い、まだ小學生なのに大人らしい息子に教えられる父の姿を率直に描いている。父は、自分の過去を思い出すことで、息子だけでなく自分自身も勵ます。

「精一杯生きたろう(2012年)」は、愛、憎しみ、絶望、希望、裏切りなど人間が感じる素直な感情を認めて乗り越えることにより、生きる中で本当に大切なことは何かを探していく過程を描いている。その中で、父も息子もくじける日はあるが、立ちあがるため心を引き締めて、今日に感謝し、精一杯生きようとする。

「おちつきました(2013年)」では、「縁」という言葉を使って、すべては自然に流れていくことだと話し、そのため、考えすぎず、成り行きに任せろと言う。人間関係は難しいが、それも「縁」だと言う。「自分」を知り、信念をもって生きていくことで、落ち着くための努力をしている親子を描いている。幸せを感じるのは、心の持ちようで、希望を持って生き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話す。